

# 미국 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및 농가경영지원정책 조사

2016. 1. 24. ~ 31.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

## 1. 출장 목적

- 1) 미국의 과일 생산·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의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동향 조사
  - 미국의 과일 생산(체리, 와인가공을 중심으로) 및 수출 동향
  - 미국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제도 조사
- 2)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 연차보고서의 미국의 주요 과일(포도, 체리) 등에 활용
  -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분야의 농업인 지원 분야 정책 방향성 연구에 활용
  - 우리나라 농식품의 미국 진출을 위한 LA(캘리포니아지역)의 식품 소비 트렌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이해

## 2. 출장 목적 세부 내용

- 1)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4년의 피해분석결과 포도, 체리 등에 대해 피해보전·폐업지원이 발동되었음.
- 2) 체리의 생산·유통 동향 및 포도·와인 생산·가공 산업 조사
  - 체리 생산자 협회에 관한 사항(조합의 연혁, 운영 현황 등) 조사 및 2015년 산 체리 예상 생산량 및 가격 동향, 유통 과정 조사
  - 주요 과일 수출국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 시장 진출에 필요했던 전략
  - 워싱턴 포도 생산 동향 및 가공(와인) 산업 조사
- 3) (농업인경영안정지원방안) 시장개방·경영위기 등에 대비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편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사
  - 미국의 수입보장보험의 성격인 ARC/PLC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조사
  -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고정지불금 지원 당위성이 낮아져 폐지하고, 그 재원

의 일부를 활용하여 부족불형 지불제, 수입안정지불제 및 낙농지원제도의 예산을 대폭 증액

- 농작물 지원정책은 마케팅론, 직접고정지불, 부족불형 지불(혹은 수입안정형 지불)의 3단계에서 마케팅론과 부족불형 지불의 2단계로 조정
- 수입안정형 지불제의 전면 개편을 통해 ARC(농업위협보상)프로그램을 도입함. 기존 ACRE가 주 평균 단수 기준이라면 ARC는 개별 농장단위(혹은 카운티 평균단수) 단수 적용이 가능함.
- ARC의 가격은 전국가격, 단수는 원칙적으로 카운티 평균이며, 농장 ARC는 농장단위 단수를 적용함. 카운티 단수를 적용함에 따라 주 평균단수에 비해 개별 농장의 상황에 적합함.
- 추세적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하락을 막기 위해 ARC는 기준가격의 하한을 설정(PLC의 참조가격 사용)함. 이를 통해 ARC는 수입안정뿐만 아니라 부족불형 성격을 갖게 됨.

- 4) 한국의 농식품이 현지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조사
  - FTA를 활용하여 미국에 진출한 한국식품 사례 조사
  - 한국 농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 기업의 진출에 따른 한국의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조사
- 5) 2012년부터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한국에 접근성이 좋은 미국 서부 지역의 주요 과일 품목들에 대한 생산·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의 농업경영안정지원정책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6)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한·미 FTA 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3. 주요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

기관명	소재지	조사 내용
KOTRA	LA	한국 농식품 수출 현황 및 한국 농식품의 시장 동향 조사
한남체인	LA	
USDA of California	세크라멘토	USDA 농업인 지원 정책 사업 조사
Stewart&Jasper Almond Company	머테스트	머테스트 지역(캘리포니아 동부) 아몬드 생산 및 소비 조사
나파밸리	샌프란시스코 부근	나파밸리 와인 산업 및 6차 산업 현황 조사
Cherry Growers	셀럼	체리 생산자협회 조사
우던빌 인근 와이너리	시애틀	시애틀 와인 생산 현황 및 워싱턴 포도 산업 조사

### 4. 출장일정

날짜	일정 및 면담
1월 24일(일) 1일차(LA)	현지도착(정리 및 휴식)
1월 25일(월) 2일차(LA)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 한국 농식품 수출 현황 및 시장 동향 조사 한인타운 한남체인 (한국 농식품 유통 현황 조사)
1월 26일(화) 3일차(세크라멘토, 머테스트)	현지이동(LA -> 세크라멘토) Agriculture Issues Center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농업인 지원 정책 사업 조사 머테스트 아몬드 생산 산업 조사 - Stewart&Jasper Almond Company
1월 27일(수) 4일차(샌프란시스코)	나파밸리 와인 산업 동향 조사
1월 28일(목) 5일차(세일럼)	Cherry Growers - 체리 생산자협회 소개 현지이동(세일럼 -> 시애틀)
1월 29일(금) 6일차(시애틀)	시애틀 우던빌 인근 와이너리 - 시애틀 와인 생산 현황 및 워싱턴 주 포도 산업 조사
1월 30일(토)	
1월 31일(일)	한국도착

**5. 출장 결과**

**가. 한국 농식품 수출 현황 및 시장 동향 조사(코트라 LA 무역관)**

- 한국의 농식품은 주로 LA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수요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한국 농식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인 1세대가 한국적인 것을 선호하여 한국 농식품이 많이 소비되었으나 최근에는 한인 2세대들이 한국 문화·농식품을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함으로써 점차 한국농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농식품에 대해 미국에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인 2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 신선농산물은 대체적으로 신고배 위주로 많은 수요가 있음
  - 신고배는 미국인들이 수입을 통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신선 과일이며, 미국의 배가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음
  - 앞으로 한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신고배와 같은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인종의 선호도에 따라 수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LA를 포함한 중남부쪽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멕시코 등의 중남미 사람(라틴계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남미(특히 멕시코)인들은 캘리포니아지역 노동력의 핵심층임
  - 중남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여 한국의 라면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임. 또한, 이지역의 음식 문화에 대한 라틴사람들의 경험이 중남미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한국 농식품(자극적인 상품들)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백인들의 경우, 한국 김과 같이 건강에 좋은 식품(유기농 등)이 선호됨
-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① 라벨링·패킹, ② 원산지인증 등, ③ 수출농식품 단합, ④ 글로벌파트너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5 -

- 우선, 미국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점인 라벨링과 패킹은 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원산지 인증, 할랄 인증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는 이슬람 문화 등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식품에 대한 신뢰성이며,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음. 할랄 인증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시장공략을 위한 가격정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수출농식품협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 중국의 진출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식품협회를 통한 단합으로 한국 농식품의 시장점유율을 적정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LA 지역에서는 식품협회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KOTRA)
- 글로벌 파트너링을 위해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하거나 베이저급의 벤더를 통해 수출·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런 점에서는 한국 농식품 수출을 위해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코트라 미국 LA 지사, 한남체인(한인타운)>



**나. 한국농식품 유통 현황(한남체인 시장 조사)**

- 한남체인은 한인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마트로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
  - 한국의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 김 과자 등이 있었으며, 김 과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가공식품임(코트라 LA 지사)

- 6 -

- 특히, 광천농협의 경우 녹차김을 한남제인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음

○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LA 한인타운에 한남제인이 입점함으로써 한인들의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을 선호하는 한인 및 타인종 고객들을 위해 H마트는 유기농 식품 운영 및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한남제인 한국 농식품 유통(광천농협 녹차김, 김스낵)>



다. 미국의 농업경영안정지원제도(UC Davis, Agriculture Issues Center)

○ 미국의 2014 Farm Bill에 따라 직접지불제(DP), 부족불지불제(CCP), 수입보전지불(ACRE)를 폐지

- 대신 유사한 형태의 가격손실보상(PLC: Price Loss Coverage)와 농업위험보상(ARC: Agriculture Risk Coverage) 정책을 곡물, 유지류 생산 분야에 새롭게 도입

- 가격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평균농가가격이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농업인은 직불금을 지급받게 됨

- ARC는 카운티와 개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ARC-CO(ARC-county)는 1에이커 당 카운티 수입이 벤치마크(전국 가격 올림픽 평균)의 86%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됨

- 농업인은 PLC와 ARC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ARC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ARC-IC(Individual version)을 선택할 수 있음

○ 현행 정책에 적용될 참조가격(reference price)는 기존제도인 CCP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

- PLC와 ARC에 적용되는 참조가격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전국 가격과 카운티 수확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CCP 프로그램과 달리 참조가격이 변하게 되어 있는 구조

<지급발동가격 및 최대지급률>

작물	지급발동가격			최대지급률		
	CCP	PLC	ARC	CCP	PLC	ARC
밀	4.17	5.50	5.92	0.71	2.56	0.69
보리	2.63	4.95	4.52	0.44	3.00	0.53
옥수수	2.63	3.70	4.05	0.40	1.75	0.47
귀리	1.79	2.40	2.61	0.376	1.01	0.30
수수	2.63	3.95	3.95	0.33	2.00	0.46
대두	6.00	8.40	9.53	0.56	3.40	1.11
땅콩	495.00	535.00	407.11	104.00	180.00	47.34
장립종말	10.50	14.00	11.13	1.65	7.50	1.29

○ PL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는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 PLC 참여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뿐만 아니라 보완적 보장 옵션(SCO: Supplemental Coverage Options)을 가입할 수 있음(ARC를 받는 농가는 SCO에 가입할 수 없음)

○ 면화와 낙농농가에는 Cotton Transition Payments와 마진보호프로그램(Margin Protection Program)을 적용

○ 미국은 오래전부터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수입보험, 가격하락지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됨

- 면화 농가들의 경우, 2015년 가격 조건이 나쁘지 않아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음. 이는 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프리미엄)의 장점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수입보장보험과 PLC 정책도 특정 품목을 선정하여 직불금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WTO의 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 점이 여전히 존재  
- 또한, USDA가 농업 관련 통계들을 잘 구축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는 앞으로 TPP, RCEP 등의 Mega FTA에 따라 시장 개방이 더욱 커지고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농가들은 국산 농산물의 가격하락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 듯, 미국에서는 지금도 농정 여건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미국 농정에서 가격하락 위험을 흡수하는 경영안정망 장치가 주요한 농정수단이며, 기초 농산물의 가격하락 위험성을 보호하는 것은 농업경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농업 상황과 재정여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가격하락 대응 지원체도를 합리적으로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UC Davis Agriculture Issues Center>



라. 캘리포니아 아몬드 생산 현황 조사(Stewart&Jasper Almond Company)

- 스투어트&제스퍼 아몬드는 가족농들이 운영하는 아몬드 회사로 San Joaquin 밸리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9 -

- 아몬드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이며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의 판매액은 연평균 20억 달러 수준
- 스투어트&제스퍼 아몬드는 캘리포니아 동쪽 지역(머데스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직접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을 하고 있음

-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아몬드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뭄으로 인한 아몬드 공급 부족으로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
- 가뭄이 가장 심했던 2014년(생산연도)의 경우 생산성은 평년보다 5.3% 낮은 2,150파운드/에이커이며, 가격은 평년대비 50% 상승한 319센트/파운드로 조사됨
- 아직 확정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2015년산도 가뭄이 심각해 2014년과 비슷한 수확량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농가들이 아몬드 재배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의 다양성임
- 아몬드는 직접 구운(Roasted) 상태로 먹을 수 있지만, 기름을 만들거나, 초콜릿, 우유 등과 같이 가공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음식들과 어울릴 수 있어 활용도 측면이 뛰어나
- 하지만, 칼로리가 높고 지방함량이 많아 적정량을 초과해서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음

마. 캘리포니아 지역 와인 산업 동향 조사

□ Castella di Amorosa Napa Valley

- 나파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Castella di Amorosa는 와이너리 투어로 유명한 지역으로 13세기부터 운영되고 있음
- 와인용 포도 재배로 유명한 나파밸리 지역의 대표적인 와이너리임
- 와이너리에 입장하면 5가지의 프리미엄 와인에 대해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6차 산업의 전형적인 미국의 와인 산업은 와인 생산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과 환경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와이너리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와인 생산용 포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유채꽃을 같이 재배하고 있어 농장의 경관과 환경을 같이 생각하고 있음(이는 나파밸리 전체 지역의 특징)
- 우리나라도 6차 산업의 활성화도 좋지만, 경관과 환경 등도 같이 생각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휴가 등을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파밸리 Castella di Amorosa>



바. 미국 체리 산업 조사(오레곤주 체리 생산자 협회)

- 오레곤 체리 생산자 협회는 고품질의 단미 체리(Sweet Cherry)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설립한 생산자 협동조합
  - 오레곤주는 대부분 가족 경영으로 체리 농장이 운영되고 있음
  - 오레곤 생산자 협회에서 생산되는 체리는 Royal Harvest 브랜드로 직접 소매단계로 직접 유통(Non-GMO이며, 체리 가공품 등도 직접 생산)

<오레곤 신선 체리 인증 현황>



- 오레곤 체리 생산자 협회는 지역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기여를 집중하고 있음
  - 협회 차원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농장 경영 등의)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협회 차원에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농장 경영 등의)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15년산 단미 체리는 2014년에 대비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
  - 2015년에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겨울 날씨와 함께, 봄철 비와 평균 이상의 온도로 오레곤 주의 Sweet Cherry 생산량은 크게 감소
  - Tart 체리는 2014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2013년의 생산량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체리 나무가 재식 중에 있으며, 아직 재배에 들어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2016년산 체리 생산량은 기상여건과 작목의 상태(질병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정확한 예측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며, 다만, 과거에 비해 전년도에 체리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2015년산 오레곤 주 체리 생산량>

구분	2013년산	2014년산	2015년산	2015/2014
Sweet Cherry(톤)	52,000	57,900	41,000	-29.2
Tart Cherry(천 파운드)	4,300	2,400	2,800	16.7

자료: USDA, NASS.

<오레곤 주 생산자 협회>



사. 시애틀 우딘빌 와이너리

- 시애틀의 북동쪽 Sammamish River의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우딘빌 와인 컨트리에는 100가지의 와인 브랜드가 있는 대표적인 와인 생산 단지 (워싱턴주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와인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임)
- 샤프 샘미셸 와이너리는 대표적인 와인 브랜드로 워싱턴 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와이너리이며, 미국 내에서도 10위 내외로 유명한 와이너리임